

5/12 (일) 날씨 맑음

30937
조리나

벌써 일요일이었다. 오늘은 참 일어나기 힘든 하루였다

아침부터 학원은 가야한다. 근삼의 하루는 참 어렵고 힘들다

난 힘을 뭉쳐 몸을 돌려 학원에 갔다가 모의과를 풀어야했다.

학원 애들은 다 나와있었다. 다들 [^] 졸린 상태에 와서 그런지
아침이라

애들 표정이 안 좋아 보였다. 학원에 ~~가~~ 끝날 시간이 되니 12시였다.

배고픈 시간이었다. 나는 필요한 문제집을 사기 위해 서점에 들러

책을 샀다. 나는 매번 문제집만 사기에 바쁘게 같다.

다 풀지 못한 문제집도 있는데 생각해 보면 그동안 안 풀 문제집이

너무 낭비였다. 당분간은 필요한 것만 사기로 결심했다

집에 돌아와 엄마가 구어준 삼겹살을 맛있게 먹었다.

먹고 나면 ~~즐거~~ 즐겁게 사랑이라 날씨도 좋은 날 바람을

섞어 잠을 잔다. ~~일어나~~ 일어나 보니 친구에게 귀찮이 만났었다

나오겠다... 난 제각각에 친구랑 응응 하기를 하고 그전에 공부

를 하기로 했다. 공부를 다하고 친구랑 응응하는 상쾌한

마음.. 두다를 펴냈다. 집에 와서 하루 일과를 정리했다.

'내일' 학교 가기 귀찮았다. 일찍 일어나기 싫다 ~ ~

그래도 널 아침에 좋은 하루가 있기를 바라며 잘 것이다